

사이월드, NFT·메타버스 등 MZ 저격 콘텐츠로 '중무장'

지속가능 'SNS 플랫폼' 주안점 IBK기업은행과 도토리은행 운영 한컴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미니홈피 연계 NFT 엔터 사업도

추억의 SNS 사이월드가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사이월드는 이번 재출시를 준비하면서 NFT와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SNS 플랫폼으로서 단장에 나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사이월드가 12월 17일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초록백컴퍼니, IBK기업은행, 한글과컴퓨터 등과 손을 잡고 NFT,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월드 한컴타운' 오픈

사이월드를 운영하는 사이월드제트는 한글과컴퓨터와 손을 잡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월드 한컴타운'을 만든다는 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사이월드제트와 한글과컴퓨터는 사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인 사이월드 한컴타운 설립을 위



사이월드에서 구현되는 'IBK 도토리은행'.

사이월드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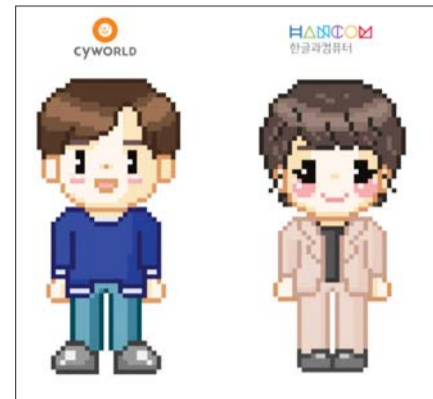
한 합작투자계약을 완료하고 법인 설립에 들어갔다. 사이월드 한컴타운은 다음 달 17일부터 사이월드와 동시 오픈할 사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월드 한컴타운을 운영하게 된다. 사이월드제트 측은 "SNS 사이월드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월드 한컴타운간의 완벽한 연동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이월드제트와 한글과컴퓨터의 이번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은 SNS 사이월드와 메타버스 한컴타운이 만나 사이월드 메타버스 플랫

폼을 구축하는 첫 단계로 풀이된다.

사이월드제트는 사이월드 오픈에 맞춰 사이월드 회원을 대상으로 사이월드 메타버스 버전인 사이월드 한컴타운을 출시해 2040 회원들을 위한 생활형 메타버스를 출시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SNS 사이월드 고유의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SNS에서 쪽지를 보내는 것, 선물을 보내는 것, 파도타기 등이 3D로 접목되어 사이월드 한컴타운의 주요 서비스로 예상된다. 또 '3D 미니미'가 메



사이월드가 한글과컴퓨터와 손잡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월드 한컴타운'을 만든다. 사진은 사이월드 캐릭터로 구현된 (왼쪽) 손성민 사이월드제트 대표와 김연수 한글과컴퓨터 대표. /한컴

타버스 서비스 사이월드 한컴타운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등장하게 된다. 또한 사이월드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사이월드 한컴타운에서는 블록체인과 아티팩이 연계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NFT 탑재 가상경제공간 '사이월드'

사이월드는 이번 재개장을 준비하면서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NFT 기술을 탑재한다.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이월드제트는 IBK기업은행과 '서

비스 협업 및 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에 은행권 단독으로 입점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도토리 구매건수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하는 'IBK 도토리 통장(가칭)' 등 사이월드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게임요소를 접목한 '메타버스 금융체험 서비스'도 공개한다.

초록백컴퍼니와도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한 NFT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초록백컴퍼니는 사이월드를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로 구축하는데 힘을 실을 예정이다. 우선 사이월드 내에 초록백컴퍼니와 초록백미디어가 제작하는 드라마의 미니홈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사이월드 내에 유통할 NFT(대체불가토큰)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월드제트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의 메타버스 영업점 입점을 시작으로 국내 대표기업들도 브랜드 미니홈피 및 사이월드 한컴타운 입점을 준비 중"이라며, "2040 회원들의 생활형 메타버스의 오픈을 기대해달라"고 설명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현대제철, 친환경 LNG추진선으로 원료운송

이산화탄소 등 줄고 연료효율 높여 친환경 운항으로 탄소저감 기대

현대제철이 해외 원료 운송에 약화친 연가스(LNG) 추진선을 투입하며 친환경 운항을 통한 탄소저감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24일 목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친환경 선박 '에이치엘 오서닉호'가 성공적으로 인도돼 첫 출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서닉호는 이날 조선소를 출항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호주를 오가며 연간 200만톤의 철광석과 석탄을 운송하게 된다.

오서닉호는 길이 292m, 폭 45m, 갑판높이 24.8m의 18만톤급 LNG추진선이다. LNG연료는 기존 고유황 선박유 대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



현대제철이 원료 운송에 투입한 첫 LNG추진선 '에이치엘 오서닉호(HL Oceanic)'.

물, 이산화탄소를 각각 99%, 90%, 30% 줄일 수 있고, 연료효율은 30% 이상 높일 수 있어 친환경·고효율 운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서닉호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해 국산화 수준을 선가

의 87%에서 97%까지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LNG연료탱크와 연료공급 시스템 등을 국산화해 국내 LNG추진선 기술의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ysw@

다음 뉴스, 내년부터 구독형서비스로 전환

언론사가 직접 뉴스·사진 등 편집

포털 다음의 뉴스 콘텐츠가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형 서비스로 변한다.

카카오는 24일 '다음 뉴스 서비스 개편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독형 서비스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지난 2년간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이라는 큰 방향을 갖고 뉴스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카카오톡에서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뷰'를 선보였고 내년 1월 중순 모바일 다음에도 '뷰'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구독형 콘텐츠 '카카오뷰'는 지난 8월 첫선을 보였다. 카카오톡은 다양한 '관점'이 담긴 콘텐츠를 카카오톡에서 '본다'는 의미이며, 카카오톡 세번째 탭에서 만날 수 있다. 카카오톡은 이번 개편으로 다양한 기사

들이 알려질 기회를 마련하고자 '발전' 탭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직접 '구독'한 채널의 보드만 모아 볼 수 있는 '마이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기존에 뉴스 서비스 이용자 및 언론사를 위해 '언론사 보드'만을 모아발견해 구독할 수 있는 '뉴스' 탭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는 뉴스,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사를 직접 편집해 '보드' 형태로 발행할 수 있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편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언론사가 구독자와 관계를 맺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관계형 도구 및 유료모델 등을 도입해 끊임없이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혁 기자

LGU+ '안녕-프랑스' 콘텐츠 개편

LG유플러스는 U+DIVE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현실(VR) 프랑스 여행 콘텐츠 '안녕-프랑스'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안녕-프랑스'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프랑스 관련 여행·공연·미술 콘텐츠다. 지난 8월 U+VR 앱을 통해 출시된 이후 이달 선보인 U+VR·AR 통합 플랫폼 'U+DIVE'로 이전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20여편에서 총 30여편으로 확대된 콘텐츠 라인업을 선보인다. 대표 신규 콘텐츠로는 '베토넬 360'과 '모차르트 360' 등이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SKT "멤버십혜택, 할인·적립 골라쓰세요"

내달 1일 'T 멤버십 2.0' 출시 고객 선호도 높은 제휴사 확대

SK텔레콤은 오는 12월 1일 고객 눈높이에 맞춰 제휴처를 대폭 늘리고 사용 편의를 높인 새로운 T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SKT는 지난 1997년 이동통신 업계 최초로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앴고, 이번에는 고객 혜택을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고객 스스로 할인이나 적립 가운데 원하는 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멤버십 2.0'으로 진화시켰다.

SKT는 무엇보다 고객이 새로운 T멤버

십을 더 많은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고객 선호도를 반영해 멤버십 제휴사 규모를 확대했다.

'파리바게뜨', 'CU',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등 기존 제휴사는 그대로 유지되며 '폴바셋', '피자헛', '그린카' 등 대형 제휴처가 새롭게 추가돼 제휴처가 대폭 늘어났다.

고객은 확대된 제휴처에서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할인형 혹은 적립형 가운데 멤버십 이용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규 T멤버십은 '할인형'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고객이 '적립형'으로 변경을 원할 시 T멤버십 앱 내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SK실더스, '무인매장 PC방' 관리 서비스

'캡스 무인안심존' 라인업 확대 청소년 출입 제한 관리도 가능

SK실더스가 PC방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며 무인화 업종 라인업 확대 및 시장 선도에 나선다.

SK실더스는 24시간 무인 안심 AI 솔루션 캡스 무인안심존 PC방 패키지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캡스 무인안심존 PC방 패키지'는 AI CCTV, 출입인증기, 환경감지기 등 무인 PC방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통합 제공한

다. 특히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밤 10시 이후에는 얼굴인증, QR인증, 원격 신분증 확인 등 철저한 출입 관리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이번 패키지에는 기존 '캡스 무인안심존'에서 제공하는 고화질 AI CCTV를 동일하게 지원한다. PC방 운영자가 미리 설정해둔 금지구역을 침입하거나 장시간 체류 또는 쓰러짐이 감지된 경우 AI CCTV가 이를 감지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강준혁 기자